



강화군, 오랜 숙원사업 조업한계선(어장확장) 조정에 최선

유천호 군수 “서해와 한강이 만나는 강화바다 생태계의 보고, 주민에게 돌려줄 것”



우선 조업한계선의 북쪽에 있는 어항인 하점면 창후항, 교동면 남산포항 및 죽산포항, 삼산면 서검항, 서도면 불음항은 입·출항 시 조업한계선을 넘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업한계선 조정계획으로 확장되는 어장은 창후, 교동, 서검, 분지골어장이며, ▲창후어장 7km² ▲교동어장 18km² ▲서검어장 14km² ▲분지골 40km² 등 4개 어장, 79km²규모이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한강 하구의 황금 어장 확장으로 침체된 포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월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선박자동출항단말기(V-pass), 초단파대무선전화기(VHF-DSC) 등 안전장비를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어업지도선을 순회 배치해 어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향후에는 군부대,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어장확장 시 안전사고 우려를 불식할 계획이다.

강화군이 접경지역 어업활성화 및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조업한계선을 조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군부대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협의를 이어가며 조업한계선(어장확장)을 현실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화바다의 조업한계선은 1960년대에 설정된 이래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갯벌퇴적 등 지형변화, 어선의 성능향상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에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조업한계선 조정(어장확장)을 위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 해수부, 국방부 등에 전달했다.

강화도 바다는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 내륙에서 유입되는 영양 염류로 새우, 장어, 송어, 반지, 꽃게 등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는 황금어장이다. 특히, 오염없는 강화갯벌은 어족 자원의 휴식과 번식을 위한 서식지로 생물의 종이 다양하다.

유천호 군수는 “서해바다와 한강이 만나는 강화바다는 생태계의 보고이지만 어로활동에 제약이 많아 어촌이 침체되어 왔다”며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민선 8기 공약인 어장 확장을 반드시 이뤄 접경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어린이 공원 조감도(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뉴스1, 뉴시스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을 발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 분야 시상이다.

이번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강화군의 '인구 소멸 위기, 출산과 교육 정책'이 군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최고의 출산정책과 전국 최고의 교육 정책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이룬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도권 최고 수준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 자녀에게는 출산지원금, 생일축하금 및 양육비를 포함해 740만 원, 둘째 자녀는 1,160만 원, 셋째 자녀는 1,960만 원, 넷째 자녀 이상에게는 2,84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교육 격차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에만 교육경비 보조금 25억 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해 ▲초등·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8억 6천 8백만 원) ▲자율형 공립학교 및 행복배움학교 지정 고등학교 지원(2억 5천만 원) ▲창의체험 활동 지원(2억 1천 7백만 원) ▲명문 우수고교 육성(3억 1천 4백 원) ▲진로·진학 프로그램(8천만 원)

강화군,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

출산 및 교육정책 최우수사례 선정

▲강화섬 외국어교실 거점학교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등 등·하교 안심알림 서비스(1억 8천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3천 6백만 원) ▲무상급식(9억 4백만 원) 등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군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50억 원을 직접 조성하며 장학사업을 강화했다. 또한, 제3,4 장학관 추가로 신설하고, 중위소득 200% 이하 모든 대학생에게는 학기별로 최대 100만 원을 등록금으로 지원해 교육비와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민선7기와 민선8기를 거치며 쌓아온 출산 및 교육 정책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강화초등학교 에어샤워기 지원(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 '농·축·수산업 발전 정책협의회' 개최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정책 추진, 우수한 입법조례활동 공로 인정받아



박승한 의장,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의정부문 '최우수상' 영예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이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9일(금) 여의도 쉐리튼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뉴스1, 뉴시스의 후원으로 모범적인 혁신정책과 우수한 입법조례 활동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분야 시상으로서, 의정부문의 경우 조례안 외에도 혁신적이고 타 지방의회의

모범사례가 될만한 활동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정책대상에서는 박 의장이 6대 군의원을 지내며 대표발의한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가 코로나임에도 한 해에 1,6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올 정도로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라 불리는 인천 강화군의 관광객 확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부문 기초의회 군부문 유일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 날, 박 의장은 "영광스러운 수상에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서 민심을 존중하고 집행부와 소통하여 강화군 발전과 군민 화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현재 제9대 전반기 강화군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박승한 의원은 제6대·제8대 군의원 시절부터 쌓아온 조례안·예산안 심의에서의 탁월한 능력은 물론 사랑방 간담회 등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 최백하 기자

강화군의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강화군의의회 정례회

강화군의의회(의장 박승한)는 1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2022년도 군정을 마무리하는 이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비롯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의원 발의 1건을 포함한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2일과 5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함상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7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의회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1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 시정연설 2023년도 군정 방향 제시

유천호 군수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부러움이 되는 강화군 만들 것”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일 제283회 강화군의의회 정례회에서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도 변치 않는 군민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로 군정동력을 잃지 않고 많은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며 “2023년도 예산안에는 군민께 행복을 드리고 모두가 잘사는 풍요로운 강화군을 위한 희망찬 미래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유천호 군수는 2023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밝혔다. 이어 2023년 주요 군정운영 방향으로 ▲군민 생활 SOC 혁신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강화건설 ▲과감한 미래 인재 양성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 ▲농·축·어업이 미래가 되는 경쟁력 강화 ▲화개정원 등 아낌없는 관광 투자 ▲희망찬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천호 군수는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 인천시 등을

중흥무진 뛰어다니며 광역 도로망 확충 등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올해 대비 53억 원을 증액한 1,812억 원, 시비보조금은 33억 원이 증액된 826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4억 원을 확보해 올해 본예산 보다 247억 원을 증액한 6,394억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했다.

유천호 군수는 “올해에도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 속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도심 속 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행복센터 준공, 화개정원 개장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내년도에는 강화군에 사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고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도록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복지를 강화해 피부로 느끼는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승한 군의장 공동기자회견, 강화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수도권 역차별 안돼” ... 강화군‘기회발전특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강화·용진·연천·가평 공동기자회견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군(郡)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12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배준영 국회의원(중구·강화군·용진군),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시·연천군)과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김진성 용진부군수가 참석해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특별법에서 기회발전특구 대상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4개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천편일률적인 해석으로 역차별 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함께 강화·용진·연천·가평 4개 군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

이어 “4개 군은 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영향으로 고령화 지수 및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아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강화·용진·연천·가평 공동기자회견

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 중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수도권 지자체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이에 강화·용진·연천·가평 등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이 함께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날 박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우리 강화군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서 접경지역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서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왔다”며, “우리 군민들이 강화군에 살고 있어도 공정한 기회를 누리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

강화군, 명품 브랜드 '강화섬쌀' 첫 수출 초도물량 20톤 수출길, 세계인의 밥맛 사로잡는다



강화섬쌀 캐나다 수출(사진제공 강화군청)

명품! 인천시 대표 브랜드 쌀 '강화섬쌀'이 수출길에 오르며 세계인의 밥맛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9일(금) 강화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RPC) 광장에서 '강화섬 쌀' 20톤의 상차 행사를 개최하고 첫 해외 수출을 축하했다. 이번에 수출길에 오르는 쌀 20톤은 오는 12일 부산항을 통해 캐나다로 수출 예정이다. 이날 지역농협조합장, 박용철 인천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인천광역시와 강화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출을 축하했다.

초도 물량은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김영운)에서 생산한 3만 달러 상당의 햅쌀 20톤으로 캐나다 토론토 소재의 대형마트에서 내년 1월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또한, 내년 3월도 강화섬쌀 20톤을



강화 농산물 수출 협약(사진제공 강화군청)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 수출은 지난 10월 강화군과 인천시가 캐나다 유통물류 업체 'KFT'와 농산물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수출로 이어진 첫 성과이다. 유천호 군수와 유정복 시장이 추진에 앞장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지 한 달여 만에 수출이 성사됐다. 실무협의체는 강화섬쌀을 시작으로 지역 농산물 수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해외판로 개척으로 세계인에게 밥맛이 으뜸인 명품 강화섬쌀을 소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과감한 시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과감한 시책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농산물 명품화와 판로확대를 위해 강화농특산물 명품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일손 부족 및 판매 부진 등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져 군은 농산물의 품질을 올리고, 직거래로 비용은 낮춰 건강한 농산물로 소비자의 만족을 올리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또한 농·축·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수산물 유통물류비(택배비) 지원 ▲패류종패 살포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추가 신청 ▲농기계은행 임대료 인하 ▲고추건조기 추가 지원 등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과감한 시책을 이어가고 있다.

■ 모든 수산·어업인 참여하는 종합어시장 건립

강화군은 올해 새우젓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우젓 명품화 사업으로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새우젓 포장·드럼용기 제작 지원 ▲수산물 품질인증 품목지원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새우젓 생산·유통을 위해 포장재를 지원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한층 상승시켰다. 또한, 지난해에는 준공한 내가면 외포리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는 산지에서 어업인들이 어획해온 수산물을 수집·가공·보관·냉동·판매하며 유통단계를 줄였다.

아울러, 외포리 프로젝트 종합계획 일환으로 오는 25년까지 모든 수산·어업인이 참여하는 '종합어시장'을 건립해 수산물 직거래를 통해 더 싼 가격으로 품질 좋은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외포항 종합어시장 조감도 정면

■ 강화섬 순무 연중 이용 작부체계 구축

군은 순무 뿌리를 이용하는 재배형태에서 벗어나 잎(순무청)과 줄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작부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군 농업기술센터에는 교배 온실(165㎡), 춘화처리실, 종자보관실, 실증시험포 등 관련 시설을 갖추고 맛이 좋고 재배가 용이한 순무 품종을 개발해 GH만청(일명 반백이)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했다.

■ 강화섬 농특산물 수출길 확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0월 캐나다 한인 최대 유통업체인 Galleria KFT(회장 민병훈)와 지역 농산물 수출을 위한 협약을 맺고 북미지역으로 판로를 확대했다.

군은 강화섬쌀을 시작으로 '강화섬 해풍배' 또한 검역을 마치고 대만 수출길에 오르며 지역 농특산물 수출 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 '2022 강화군 청소년 페스티벌' 큰 호응

청소년의 끼와 재능 마음껏 펼쳐보여



강화군 청소년 축제(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 청소년 축제(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은 강화문화회관에서 '2022년 강화군 청소년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서 평소 학업으로 끼와 재능을 펼치지 못한 청소년들은 가요부분과 댄스부분의 경연에 참여해 열띤 공연을 펼쳤다. 또한, 초청가수 오반, 경서, 편치 등의 공연과 참여형 이벤트로 큰 호응을 얻었다.

경연에서는 ▲중등부 가요부분 최우수상(교동중 이해림) ▲중등

부 댄스부분 최우수상(심도중 박강이소) ▲고등부 가요부분 최우수상(강화고 조운규, 이용원, 권용민) ▲고등부 댄스부분 최우수상(강화여고 김도원, 서가희, 안효주, 동성주, 조서현)이 수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마련한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부근1·하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토지 이용가치 극대화



지적재조사사업 위치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부근1·하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근1지구 446필지, 413,563.6㎡, 하도1지구 739필지, 573,007.3㎡에 대한 토

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도 반듯하게 조정해 형상을 정형화했다.

향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마을안길 등 공공용 현황도로를 군유 도로로 등록해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했다. 또한 지적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면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한편, 군은 이번에 완료한 부근1·하도1지구를 포함해 2013년부터 15개 사업지구를 정비했다. 올해 사업으로 신정1·두운1지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에는 고천2·오상1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만학의 꿈, 강화군 노인대학 제50기 졸업식 개최

행복한 노후· 도전과 열정, 힘찬 인생 2막을 응원



노인대학 졸업식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회장 장기천) 부설 강화군 노인대학은 지난 9일 강화군노인회 강당에서 제50기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은 강화군 이태산 부군수와 박승한 군의회 의장, 박용철 시의원을 비롯한 노인회 임원진과 노인대학 졸업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힘찬 인생 2막을 응원했다.

노인대학은 지난 4월 개강해 교양강좌, 건강증진, 취미교실, 현장 학습 등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83명의 졸업자를

배출했다.

장기천 회장은 “졸업생들께서 노인대학에서 얻은 지식과 열정으로 지역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태산 부군수는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만학의 꿈을 이룬 졸업생 분들께 축하와 경의를 함께 표한다”며 “노인대학 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이 건강한 노후 생활에 힘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화군, 보육환경을 조성에 만전

유천호 군수 “생애주기별 촘촘한 인구정책으로 활력 줄 것”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3년부터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영어 특별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어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어린이들은 역할놀이, 만들기 등 놀이 같은 활동을 통해 생활영어 표현과 어휘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친구들과 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확장하는 외국어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어린이 맞춤형 인구활력 정책으로 ▲온 가족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군립 키즈카페 확충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강화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차량 운영비 지원 ▲길상·갭곳 어린이 공원 조성 등 인구정책을 펼치고 전국 최고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부모는 믿고 맡기고, 교직원들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유천호 군수 군립키즈카페 방문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외에도 출산·육아·보육·청소년·어르신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으로 체계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 내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 원인자부담 조달단가 공급, 올해말까지 한시적 무료 제작·교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그동안은 군은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배부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강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규 부여할 때와 소유자가 귀책사유로 건물번호판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재교부 시에 제작비를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은 건물번호판을 조달청 조달단가 소형(길, 번길) 번호판 6,000원,

대형(대로, 로) 번호판 15,000원으로 공급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신청인은 자유롭게 건물에 맞춰 디자인하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부착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주소팀(☎032-930-3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이달말까지 건물번호판을 교부받을 것을 권고드린다”며 “도로명주소의 적극 사용과 함께 내 집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이 훼손이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강화군,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검사비 및 치료비 전액 지원



에이즈의 날 홍보(사진제공 보건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제35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에이즈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12월 말까지 옥외 전광판, 군청·보건소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진행되며, 보건소 내소 민원인을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예방 행동 실천 유도를 위한 콘돔 배부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에이즈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사용, 감염된 혈액 수혈, 감염된 여성의 임신·출산·모유수유 등에 의해 감염된다.

국내 HIV 감염 경로의 99%는 성관계로, 올바른 콘돔 사용 및 안전한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으며, 조기 검사를 통한 빠른

치료를 받을 경우 증상 악화를 방지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군 보건소는 에이즈 익명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인의 빠른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통해 타인에게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에이즈 관련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4억9천만 부과

강화군은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6,409건, 24억9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거나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수협 총 7개의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 원 이상 체납 시 1개월 경과 시 마다 0.75%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유정복 시장, 겨울철 폭설·한파 대비해 ‘시민안전’강조

겨울철 자연재해, “미리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 당부



유정복 인천시장 월동기 대비 민생현장 안전점검(사진제공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폭설, 혹한기 등 동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도로결빙, 수도 계량기 동파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우선 지난해 설치된 남동구 예술로 주원고개 도로열선 설치 현장을 방문한 유 시장은 관리체계와 작동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며 “폭설과 도로결빙은 연쇄충돌 등 교통사고는 물론,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연결

되는 만큼 갑작스러운 폭설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내 주요도로의 제설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재차 강조하고 “적설 취약 구조물과 결빙취약구간은 사전에 구석구석 점검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폭설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유 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를 대비해 자연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시에는 신속한 교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2022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달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24시간 상황 근무와 폐쇄회로(CC) TV 활용 등을 통해 과학적·선제적으로 상황을 관리함은 물론, 폭설과 도로결빙 등에 대한 맞춤형 제설대책을 마련했다. 또 한파 등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 발생에 대비해 임시주거시설과 재해구호물자를 확보하고, 한파 저감시설 1,110곳과 한파쉼터 786곳도 운영하기로 했다. ▣

인천시, 마지막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펀다

12.16.(금) 접수개시 / 최초 1년 무이자 혜택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

[5단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금액	최대 2천만원 이내
용자기간	5년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보전	최초 1년간 이자전액, 이후 2년간 연1.5% 지원
금융회사	농협은행

시행일자: 2022. 12. 16. (금)

- 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 예약없이 지점에 방문하시면 해당 자금을 상담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용도하락기업 등 재단 내부심사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문의량 증가로 전화상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지막 무이자 경영안정자금(2022년 5단계) 300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일명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이자 전액을 시에서 지원받는 혜택으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차수를 포함하면 올해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는 총 2천175억 원이며, 총 지원금액은 8천495억 원에 달한다.

* 2020~2022년 지원실적 : ('20년) 3,503억원, ('21년) 2,817억원, ('22년) 1,886억원(5단계 완료 후 2,175억원 예정)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면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후 1년간은 이자 전액을,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역시 기존과 동일하다. ※ 대출 금리(3개월 변동금리) : CD금리(91일물) + 2.0% 이내 가산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무이자 정책자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돕는 소중한 자금 공급처였으며, “내년에도 경기침체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과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12월 16일(금)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예약 할 수 있다. ▣

LED트리 반짝반짝 빛나는 연말분위기 선물

새해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 담아



종합민원실 트리

강화군이 청사 곳곳에 LED 트리를 설치해 민원인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연말 분위기를 선물하고 있다.

수목 조경에는 LED 대형트리와 빛 정원을 조성해 군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메시지를 담아 훈훈한 관공서 분위기를 연출했다.

종합민원실에는 민원실 직원이 참여해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 모형을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따뜻한 연말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린다”며 “새해에도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함께 만드는 풍요로운 강화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강화군노인복지관, 소망트리로 희망전해요

강화군노인복지관은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소망을 적는 소망트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르신들은 새해 소망을 트리에 적고 서로 소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행복해 했다. 이어 트리를 직접 꾸미며 경로당에 성탄 분위기를 더했다.

한편, 노인복지관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미술치료, 토탈공예, 요가 등 프로그램과 돌핍질수업, 밸런스 워킹PT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문화활동의 기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



소망트리(사진제공 노인복지관)

강화군 치매안심센터, 치매교실 송년 뮤지컬 공연 성료



치매교실 송년 뮤지컬(사진제공 보건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일 남부인지건강센터에서 치매예방교실 참석자, 센터 이용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인식개선 뮤지컬 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관객들과 배우가 소통하는 참여형 연극으로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공연에 참석한 센터 이용자는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며 치매 가족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새롭고 알찬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치매 걱정 없는 강화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

강화군, 연말연시 이웃돕기 기탁 줄이어

강화군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관내 소재한 플러스마트에서 컵라면 300박스, BS장례식장에서 200만 원, 강화일반산업단지 기업협의회에서 300만 원, 인천전문건설협회에서 김장김치 10kg 200박스, 강화여중학부모회 운영위원회에서 순무김치(2kg) 100통, 강화를사랑하는드림머클럽에서 300만 원, 서도면 아차도 어촌계에서 100만원을 기탁했다. 하점면 주민 남 모씨가 100만 원, 길상면 주민 조 모씨가 유산금 80통(100만 원 상당)을

전달했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거어르신이 1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다.

관외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마송제일치과에서 150만 원, 제이에이치에너지에서 500만 원, (주)엘엔엘아이엔티에서 1인 소파 40개(92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눠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기탁 받은 성금과 물품은 소외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공인중개사협회 강화군지회, ‘행복가득, 사랑의 김장나눔봉사’



‘행복가득,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공인중개사협회 강화군지회(회장 김종혁)는 동절기를 맞아 ‘행복가득,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열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매년 여성회원들이 추축이 되어 중개사들의 회비로 진행된다. 지난 11~12일 정성들여 만든 김장 김치는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됐다.



‘행복가득,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김종혁 강화지회장은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담근 김치가 지역의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옥득 여성위원장(용정부동산)은 “작은 손길이지만 주변에 울림이 되어 많은 봉사의 손길이 넘쳐나는 강화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군민들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하는 중개사들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연말맞이 강화섬쌀 1000kg 기탁



시설관리공단, 강화섬쌀 1000kg 기탁(하점면)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왕근)이 지난 13일 강화섬쌀(10kg) 100포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 화도면, 하점면 이웃들에게 전달된 강화섬쌀은 공단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모아 사회공헌활동 기금을 조성해 왔다.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명절 및 연말 등 정기적으로 쌀 나눔 행사를



시설관리공단, 강화섬쌀 1000kg 기탁(화도면)

개최하여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에게 쓰일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쌀을 기탁하고 있다.

송왕근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아끼지 않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연말을 맞이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강화에 왔던 조선 임금 이야기

이경수
강화 향토사학자



구군복 차림의 철종 어진 (1861년)
사진출처: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의 임금은 모두 27명인데, 이들 가운데 우리 강화에 왔던 임금은 누구 누구일까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제가 확인해 본 이는 일단 태종, 연산군, 광해군, 인조, 효종, 영조, 철종 정도입니다. 인조 빼고 나머지 임금들은 즉위하기 전에 왔거나 폐위되고 나서 강화 땅을 밟았습니다.

태종(이방원)이 임금 되기 전 어느 해엔가 강화에 왔습니다. 《세종실록》에, 임금들이 해마다 봄·가을에 대연(승지)을 마리산 참성단에 보내 초제를 올리게 했는데, 이방원도 대연 신분으로 왔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귀양 왔습니다. 연산군은 교동에 갇힌 지 불과 2개월 만에, 마누라가 보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묘를

그대로 교동에 썼는데 8년 있다가 지금의 서울 도봉구 방학동으로 이장했습니다.

광해군은 강화읍내에 유배됐는데 아마도 강화초등학교 아래 동쪽 어디쯤 갇혔던 것 같습니다. 교동 등으로 옮겨지다가 제주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추 따져 보니 강화읍과 내가면 외포리에서 14년여, 교동에서 수개월, 제주도에서 4년 정도 귀양살이했습니다. 광

해군의 유배 기간은 다해서 19년입니다. 연산군에 비하면 상당히 길었지요. 묘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폐위된 임금의 무덤은 왕릉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묘라고 합니다.

인조는 임금으로 있을 때 왔습니다. 피란입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약 30년 만에 큰 전쟁이 또 터집니다. 후금이 쳐들어온 이 전쟁을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그때 인조와 조정은 강화로 와서 무사히 위기를 넘깁니다. 인조는 연미정에서 가서 조선 수군의 훈련을 점검하고 북산에 올라 적의 침략 가능성을 따져 보기도 했습니다.

전쟁 끝나 다행이다 싶었는데 10년 만에 또 전쟁, 이번에는 청나라가 쳐들어온 병자호란입니다. 후금과 청나라는 사실상 같은 나라입니다.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꾼 겁니다. 인조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다시 강화도 피란입니다. ‘내 팔자도 참, 거시기 허네.’ 아마 인조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임금 행렬이 강화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청나라 군대가 어느새 내려와 강화 가는 길목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일 났습니다. 최명길의 청군 진영에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인조는 겨우 남한산성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강화에 김상용이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림대군이 있었습니다. 봉림대군이 인조를 이어 즉위하니 그가 바로 효종입니다. 강화가 청군에게 점령됩니다. 봉림대군은 그 과정을 직접 보고 겪었습니다. 그래서 즉위하고 나서 강화를 지키려고 초지진, 광성보 등을 세우는 겁니다.

청군이 강화로 쳐들어올 때, 죽자! 맘먹고 막았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화를 지킬 책임자들인 검찰사 김경징과 강화유수 장신은 일등으로 도망갔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수군을 지휘하던 장신이 밋습니다. 그래도 황선신·강홍업·구원일 등이 조선의 자존심, 강화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김상용, 소현세자빈, 봉림대군은 어떻게 강화에 올 수 있었던 걸까요? 왕실과 조정의 먼 길 행차 때는 다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1진, 2진 나눠서 출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묘호란 때도 그랬습니다. 임금은 2진입니다. 왕실과 궁궐 여인들 그리고 신하들 가운데 아프거나 나이가 많은 이들이 1진으로, 임금보다 먼저 출발합니다. 노약자와 여인에 대한 배려인 셈이지요. 동시에 출발하면 뒤에 처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먼저 출발한 김상용 등이 강화에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영조도 즉위 전에 강화에 왔습니다. 전등사 경내에 있는 정족산사고에 왔습니다. 정족산사고 안에 건물이 둘인데 하나는 장사각, 하나는 선원보각입니다. 장사각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고 선원보각에는 왕실 족보인 선원록을 보관합니다. 영조가 연잉군으로 불리던 숙종 때 왕실 족보를 가지고 왔었습니다(《역주 심도기행》).

‘정조 이산’, ‘옷소매 붉은 끝동’ 이런 드라마로 우리에게 더 친숙해진 정조.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조선왕조실록 번역본을 보다가 정조가 강화에 왔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아! 정조도 왔었구나.’ 그런데 웬지 짚짚해서 원문을 확인해보니, 아니었습니다. 번역자의 실수로 정조가 한강에 나갔던 걸 강화도로 잘못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강화에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철종입니다.

제 첫 직장이 경남 마산중앙고등학교였습니다. 남한 땅 제일 북쪽 강화에서 제일 남쪽 마산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별명이 생겼어요. 강화도령! 강화에서 왔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다 강화도령이라고 부르더군요. 아, ‘강화도령’이 유명하긴 유명하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강화도령은 철종 이원범의 별명입니다. 강화에서 강화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굳이 도령으로 불러야 한다면, 한양에서 왔으니까, 한양도령이라 불러야 말이 되지요. 저도 강화에서는 한 번도 강화도령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즉위 무렵부터 한양 사람들이 원범을 강화도령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원범은 강화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양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14살에 강화에 귀양 와서 살다가 19살에, 별안간, 임금 되어 강화를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역을 꾀했다고 해요. 현종 임금을 내몰고 원범의 형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범의 형은 죽임을 당했고 원범은 귀양 오게 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교동으로 유배됐는데 대략 스무날 뒤에 지금의 강화읍내로 옮겨집니다. 유배 살던 허름한 초가는 철종이 임금 된 뒤에 새로 지어 ‘용흥궁’이 되었습니다.

원범이 철종 되는 이야기는 일찍부터 극으로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1963년에 라디오 연속극 ‘강화도령’이 나왔고 이어서 영화 ‘강화도령’도 나왔습니다. 1975년부터 1976년까지는 TBC(지금 KBS2)에서 방영된 사극, ‘임금님의 첫사랑’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저도 ‘임금님의 첫사랑’ 보던 기억이 납니다.

원범을 주인공으로 한 연속극이나 영화는 재밌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지요.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철종에 대한 왜곡된 기억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처럼 기억하는 철종의 모습 대개가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화에서 농사꾼 또는 나무꾼으로 살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올해도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우리의 이웃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선원면 한여농 성금기탁



교동향교 및 교동중·고등학교 김장김치 기탁



「나누미(美) 자원봉사단」 기부



볼은면 새마을협의회 연탄나눔

감기인줄 알았는데, 폐렴이래요. 어떻게 구별하죠?

Q) 폐렴은 어떤 병인가요?

A) 폐렴은 폐에 미생물이 침범해 생기는 염증으로 감염 후 보통 수 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가장 흔하며 드물게 진균(곰팡이)이나 기생충에 의한 폐렴도 있습니다.

대부분 구강이나 비인두에 정착하다 병원균이 기도를 통해 폐에 침투하게 되어 발생합니다.

Q) 폐렴에 걸리면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A) 일반적으로 폐렴에 걸리면 기침과 고름처럼 노란 화농성 가래가 나타나고, 대부분 38도 이상의 열이 발생합니다. 늑막과 닿은 부분에 폐렴이 생기거나 늑막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슴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거나 기침을 할 때 통증이 심해지며, 중증 폐렴·늑막염으로 인한 늑막에 흉수가 차게 되면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Q)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이 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폐렴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지만, 감기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생기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기 이후 합병증으로 인한 세균감염으로 중이염, 부비동염, 폐렴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감기와 폐렴을 구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감기는 호흡기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후통, 콧물, 기침, 두통, 미

	감기	폐렴
원인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 진균
증상	인후통, 두통, 근육통, 미열, 기침, 콧물, 코막힘	발열, 기침, 화농성 가래, 호흡곤란, 흉통
치료	증상치료 (항히스타민제, 진통소염제, 진해제)	항생제 (세균성 폐렴), 항진균제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

열 등의 가벼운 증상을 동반하며, 특별한 치료없이 일주일 이내에 좋아집니다. 하지만 폐렴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화농성 가래가 동반되며, 심한 경우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Q) 폐렴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A) 폐렴은 위와 같은 소견과 함께 가슴X선에서 폐침윤이 관찰되면 폐렴으로 진단합니다.

Q) 폐렴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A) 폐렴은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원인균에 대한 항생제 치료가 중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원인균 확인을 위한 검사를 생략하고, 경험적으로 폐렴을 잘 일으키는 폐렴 구균에 의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며, 기침이나 가래가 심할 경우 진해거담제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폐렴구균 및 독감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 성인이 호흡기 증상과 함께 38도 이상의 열이 날 때
- 증상이 생긴 후 며칠 안에 낫지 않고 가래가 노랗게 진해질 때
-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새로 생길 때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평소 흡연을 하는 경우, 천식과 같은 폐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및 신경계질환 등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확인 가능

의료기관 방문 시 예방접종 행동 수칙

1. 건강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대상자, 보호자는 코로나19 증상 있을 시 내원 전 알리기
5.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사진출처 : 질병관리청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한파란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현상으로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파특보 발표기준 ※ 기상청 '매년발우규정' (본문 6) 항목의 발표기준

한파 주의 날	한파 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C 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형 한파가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C 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형 한 지역에서 중대형 한파가 예상될 때

한랭질환 발현시 응급조치

- 한파에 정지시간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동상 등의 한랭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한랭질환 민간군과 직업군도가 높은 직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건강상태를 직업 전·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 발현	조치 및 경과 관찰	종료
저체온증 모란, 파란, 의식지어, 기억장애, 언어장애 등	· 따뜻한 장소로 이동 · 벗은 옷은 벗고 담요 등으로 감싸기 · 찬 부위(얼굴, 귀, 손발 등)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자주 닦아주기 · 의식이 있을 경우 따뜻한 음료(술 제외)와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 섭취	· 건강상태 수치 확인 · 기침약, 진통제(증상 개선하면)
동상 피부는 단단, 통증, 가려움, 피부가 갈라지고 붉게 변함, 피부 갈라짐, 소름	· 의식에 없거나 중상 개선 없음	

119 구호요청

※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종류 및 응급조치' 참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따뜻한 옷 · 물·장소! 가 기본수칙입니다!

따뜻한 옷 (한안상구)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겹의 옷을 입으세요. (3겹 이상의 옷은 보온성을 높여줍니다.) · 목감: 바람이나 불기를 막고 목기성을 갖춘 목감의 옷 · 손감: 팔다리로 보온성을 갖춘 목감의 옷 · 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하여 신체 열 손실을 줄이세요. · 필요시 얼음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 보온장갑 및 보온·방수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세요. · 물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기능이 추가된 장갑을 착용하세요. · 동파 7°C 이하에서는 맨 손으로 금속 표면을 잡지 말고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세요. · 물이나 찜질팩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 고려하여 가능하면 여분을 준비하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물을 수시로 충분히 섭취하세요. ·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쉬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하세요. · 기압적 작업장소와 기압이 크게 달라지는, 허터 등 난방장치는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인천강화점

[OPEN : 11시]
[CLOSE : 20시]



‘명품떡볶이와 통큰커피가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TEL . 032-934-9372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76-3

청년다방 인천강화점

포장, 배달 가능



더 나은 인쇄 · 광고로 보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삼성인쇄광고기획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